

## 근기요산회 5월 산행검 정기총회 회장 연임에 4인의 부회장 보임



▲ 백련산 서북 끝자락의 가장 가파른 등산구간을 오른 요산회원들이 휴식차 모였다.



▲ 은평정 부근 그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있다.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가 제3차 정기총회를 겸하는 5월의 정례산행으로 서울 은평구와 서대문구 경계에 위치한 백련산白蓮山을 올랐다. 5월의 셋째 토요일인 17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의 3번출구에 30여 회원이 집결하였다. 3번출구에서 막바로 주택가의 급경사로 가파르고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어 산행을 시작하였다. 이윽고 숲이 우거진 산길을 만나고 능선을 타고 오르면서는 싱그러운 아카시꽃 향기에 취하면서 일행은 답소를 나누었다. 뒤로는 서울의 명산 북한산 비봉능선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왼쪽으로 인왕산과 안산鞍山이 가까이 보이며 그 너머로 남산이 이내 속에 아스라히 보였다. 오른쪽으로는 은평구의 전시가가지 한눈에 펼쳐져 내려다보였다.

노약 회원이 주로인만큼 자주 쉬면서 한 시간 남짓에 걸쳐 한두 군데 급경사 오르막을 제외하고는 트레킹에 가까운 등반으로 해발 213m의 정상에 다다랐다. 정상에 바위가 하나 있어 이를 매바위의 뜻

응암鷹巖이라 하여 그 아래 응암동의 동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산이 옛적에는 왕실의 사냥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산에 멧돼지나 노루는커녕 꿩이나 토끼 따위도 살고 있지 않다. 정상에는 은평구민이 세운 은평정恩平亭이 아담한 조망대眺望臺로 서 있었으며 거기에 오르니 일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날려 주었다.

정자에서 바라보는 경관은 산의 높이에 비해 매우 아름다웠다. 한강을 비롯하여 여의도의 국회의사당과 상암동의 올림픽경기장, 하늘공원, 행주산성 등 서울의 서북지역이 한눈에 들어왔다. 조망을 마치고는 정자 밑의 나뭇그늘 아래 자리를 마련하고 늘어앉아 정기총회를 열었다. 권영익權寧翼 회장이 인사말로 ‘근기요산회가 우리 권문의 상징적 등산회로 위상이 잡힌만큼 서로가 더욱 유대를 단단히 하여 어려움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며칠전 불탄일佛誕日에 권익현權翊鉉 고문이 조계사曹溪寺의 법요식

에서 조계종총무원으로부터 불교계의 ‘노벨상’과 같다 할만한 ‘불자대상佛者大賞’을 받은 것을 다같이 축하하자고 하여 박수를 유도하였다. 이에 권익현 고문은 ‘별로 한 일도 없이 불심을 지닌 것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뜻밖의 큰 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요산회에 정근하여 상을 받고 싶다고 화답하여 또 한차례 박수를 자아냈다.

총무인 필자가 유인물을 배부하고 결산보고를 하여 승인받고 나자 권영익 회장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회칙상 임원의 임기규정이 없으나 새바람도 불어넣을 겸 임원개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잇따라 권중현權重炫 부회장도 노약한 심신을 이유로 사의를 표하며 임원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권영익 회장의 집요한 지명으로 권익현 고문을 비롯한 권기봉權琪奉, 권진택權晉澤, 권혁진權赫珍, 권오훈權五煥씨 등 5인의 전형위원이 선임되어 숙의를 거친 결과 권영익 회장과 권중현 부회장의 사의는 반려되어 유임을 수락하게 되고, 그 대신 차세대의 부회장 4인이 보강 선임되어 권재복權在福, 권재중權在琮, 권해조權海兆, 권영걸權寧傑씨가 신임 부회장으로서 취임을 수락하였다. 그리고 감사로 권혁래權赫來씨가 선임되었다. 이날의 정기총회를 위한 식음료대는 권영익 회장과 권중현 부회장이 제공하였다.

공지사항으로는 6월 1일의

구리시 동구릉 현릉제顯陵祭에 본회원 권진택 화산부원중회장이 아헌관으로, 역시 본회원 권재중·권병일·권오달權五達씨가 집사제관으로 천망되었으며 회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는 전언이 광고되었다.

행사와 점심식사를 마치고는 반대편 백련山白蓮寺쪽 능선으로 하산하여 천이백여년 고찰 백련사를 둘러 경내를 구경하였다. 백련사는 서대문구 홍은3동의 백련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고종 소속 사찰이다. 신라 경덕왕景德王 6년(747) 진표眞表율사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 최대의 정토淨土도량이다. 아미타경에 의하면 누구든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정토에 왕생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진표율사가 부처의 정토사상을 이 땅에 널리 퍼기 위하여 본사를 창건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사명은 정토사淨土寺였으며 이는 이곳이 곧 부처가 있는 땅이라는 뜻에서 붙은 것이다. 그후 조선조 정종 원년(1399) 무학왕사無學王師의 지휘로 함허화상涵虛和尚(1376~1433)이 크게 중창하였고 세조의 장녀 의숙공주懿淑公主가 부마 하성부원군河城府院君 정현조鄭顯祖의 원찰願刹로 정하면서 사명을 백련사로 개칭하였다. 선조 25년(1592)에 임진왜란의 병화로 건물이 소실되었으나 대중이 중창불사에 착수하여 3년만인 현종 3년(1662)에 대법전을 중건하였으며 영조 50년(1774)에 본사에서 수행하던 낙창군洛昌



君 이택李喆 이 크게 중창하여 사찰의 규모를 일신하였다. 이어서 수차례 중수를 거듭하다 1963년 이후 본사의 승려들이 합심하여 범종을 조성하여 현재의 면모를 갖추었다.

<사진 權奇允·글 權炳逸>

## 동호해서체천자문東湖楷書體千字文

동호 權相穆씨 펴내



서울 광희동에 서숙書塾 동국고전연구원東國古典研究院을 열어 후진에게 한학漢學과 서예를 지도하고 있는 동호東湖 권상목權相穆씨가 ‘동호해서체천자문東湖楷書體千字文’을 수필手筆하고 주석註釋을 더하여 발간하였다. 국배판菊倍版 130여면으로 2008년 2월 20일 서울 금호동의 삼육三育출판사 발행이다.

북야공과 사재정공계 33세世로 1933년 안동시 예안 출신인 저자는 서울대학교와 단국대학교 교무처 등에서 공직생활을 마친 뒤 사사한 관재寬齋 권숙權肅 선생의 관재학회寬齋學會 총무와 한시인들의 모임 근우시회權友詩會의 총무를 오래도록 맡고 있으며 또한 성균관의 전의典儀이기도 하다. 기초한문교재로 이를 만들었다고 하는 책의 범례에서는 퇴계退溪의 수필手筆천자문을 대본으로 해서체로 썼으며 글

자마다가 두 가지의 뜻과 음을 달고 성조聲調의 평측平仄을 구분 표시하였으며 풀이를 원의原義에 충실하게 하면서 학습에 도움되게 주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성균관 부관장을 지내고 연민학회淵民學會 이사장으로 있는 손계損契 하유집河有楫씨가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우리에게 친근한 천자문은 양梁나라 주흥사周興嗣가 1천자의 한자를 중복하지 않고 배열하여 250구의 사언시四言詩를 만든 것이다. 그 속에는 천지의 생성과 운행의 원리로부터 동양의 역사·문화·제도·인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의 문화가 다 포괄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천자문이 근대교육의 주류에서 밀려나 그 좋은 내용이 매몰되었는데 ‘이 점을 안타깝게 여긴 동호東湖 형이 천자문을 자신의 필체로 정서하고 각구절 뒤에 그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정리하여 첨부함으로써 천자문의 좋은 내용을 일목요연하

게 흠취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 저자는 그 후기에서 ‘천자문은 판본과 필사본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한석봉韓石峯 천자문이 가장 널리 통용되어 있다. 그러나 간혹 정자正字가 아닌 것이 있고 또 오랜 세월 전래되면서 속자俗字 등 오기된 글자도 있어서 불초는 퇴계선생수필 천자문을 대본으로 하고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 등의 정자를 근거하여 해서체로 쓴 것이다. 뜻·음과 해석문 역시 틀리고 다른 것이 있어 바로잡아 초학자에게도 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문을 연구하는 분에게도 다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다. 연락전화는 02) 2269-9391·011-9981-9391이다.



▲ 백련사의 일주문 아래 요산회원들이 모였다.

東湖楷書體千字文